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*  

김 대 일**

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취학 자녀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. 출산 및 자녀양 자녀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혼 여성 노동공급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, 본 연구는 고학년 자녀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. 고학년 자녀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할 가능성을, 최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향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있다. 본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 기혼 여성일수록,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학 자녀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주제어: 기혼 여성, 노동공급, 자녀 교육, 사교목

1. 서론

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,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낮다는 점이다.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기준으로 74.4%로 일본(73.1%), 호주(73.0%), 스웨덴(69.3%), 영국(70.5%), 미국(73.3%) 등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수준에 있지만,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.0%에 불과하여 일본(47.7%)보다는 높지만, 호주(58.1%), 스웨덴(60.6%), 영국

* 본 연구에 중요한 도움받을 주신 두 익명의 석사자에게 감사드린다. 또한 황윤제, 유정준 박사에게도 건실적인 도움만을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린다. 남은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.
**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(dikim@snu.ac.kr)
(56.2%), 미국(59.3%)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에서도 25~34세 미혼 여성의 참가율은 83.3%에 이르고 있지만 25~34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 여성의 경우 참가율은 54.9%에 불과하다.


2)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서베이로는 Killingsworth and Heckman (1986)을 참조.
3) 임베로 보유비 차등 지원(스페인, 호주 등)과 근로세제 공제는 노동공급을 유발하는 방향으로, 자녀세에 종주(영국), 일자리 보유비 지원(스웨덴 등)은 오히려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의 시